

1년새 철근 수요 17% '뚝' 철강사, 생산량 조절 나서

지난 9월 내수판매 591만t 집계
내년 하반기에나 수요 회복 전망
“생산율 조정 통해 시장 개선 기대”

건설 현장에 쓰이는 철근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수요 감소폭이 워낙 커 철근 가격 급락을 면치 못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누적 철근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7.2% 급감한 571만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4월, 6월을 제외하면 매월 70만톤을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규분양, 건축 착공 등과 같은 국내 건설 지표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악화된 점이 꼽힌다.

내수 부진으로 국내 제강사들은 철근 감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누적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한 591만톤에 그쳤다. 업계는 연말까지도 철근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간 생산량이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인 771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수요 부진에 따른 감산 여파로 고철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톤당 42만원을 기록했던 국내 고철가격은 11월 중순 기준 38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철근 유통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유통 마진을 역시 더욱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중국 내 철근 생산량도 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나 철근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0월 17~23일 중국 내에서 생산된 철근은 총 251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주간 기준 올해 최대치다. 중국이 최근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철근 생산량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아 또 다른 공급과잉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지난 9월 말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다.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중국 철강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양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철근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강사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으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내 철강사는 철근 가격이 원가를 밑돌자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은 가격 인상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내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 및 분양이 점차 회복세를 보여 철근 내수 판매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철근 내수 판매는 장기적으로 내년이 바닥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철근 생산업체들의 생산을 조정해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차량용 MCU 'ISO 26262' 인증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

기능 안전·신뢰성 인정 받아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이 세계 시장에서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인정 받았다. LG전자는 CTO부문 SoC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 TV에 사용하는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시스템반도체 개발 역량을 입증하며 AI반도체 설계·개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차량용 MCU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26262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으로,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인증을 부여한다.

LG전자는 앞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MCU 제품도 기능 안전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에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획득한 MCU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첫 차량용 반도체로,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돼 AVN(Audio·Video·Navigation)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내 통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 CTO부문 김진경 SoC센터장(왼쪽)이 TUV 라인란드 코리아 프랭크 주트너(Frank Juettner)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LG전자

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TUV 라인란드 코리아 프랭크 주트너(Frank Juettner) 대표는 “LG전자는 성공적으로 구축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히 검증된 글로벌 스탠다드 반도체 칩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영역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SoC센터장은 “LG전자의 전장부품과 자율주행 기술, 콘텐츠 서비스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와 설계 역량을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 인니 전기차 생태계 구축 앞장

현지 충전 구독 서비스 개시
“인프라 확장 통해 생태계 기여”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2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는 현대차의 카라이프 앱 '마이현대 인도네시아'에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 가입 고객은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 제휴 업체와 현대차가 운영하는 288개 EV 충전소의 518개 EV 충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인도네시아 현대차 EV 충전소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충전하고 있다.

과 충전 필요량에 맞춰 충전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는 50kWh, 100kWh, 250kWh 세 가지 충전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정된 충전 용량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가 결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은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1년간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카드 보급이 낮은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제휴 업체를 늘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주현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는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구독 서비스와 같은 혁신 서비스와 EV 충전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인니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IG넥스원은 26일 구미하우스에서 대형수조 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익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LIG넥스원, 5400t 규모 수조 시험장 준공

소나체계 해외수출 박차

LIG넥스원이 해군 전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와 함께 향상된 소나체계 시험 시설과 지체 없는 양산능력 확보를 위해 대형수조 시험장을 준공했다.

LIG넥스원은 26일 구미하우스에서 신익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구미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수조 시험장 준공식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한 대형수조는 약 5400t의 충수량을 자랑하며, 각종 첨단 시험장비를 구비해 소나체계의 핵심인 수중음향센서 개발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지난해 투자 결정이 이뤄져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소나체계의 해외수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보다 일부 시설과 설비의 사양을 증설했다.

고주파는 물론 무게고 부피가 큰 저주파 대역 수중음향센서 개발까지 고려해 건물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고, 40t급 크레인을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음향센서 개발과 성능 검증, 양산까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LIG넥스원은 2009년 장보고-III 선측배열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구축함(KDDX) 예인소나 송수신장비시제 등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소나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소나체계는 수중 음향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 위협을 탐지, 추적하고 표적을 식별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우리 군의 수중 작전능력 향상 및 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에 이바지한다.

조성일 LIG넥스원 해양연구소장은 “원거리의 위협 세력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소나체계를 안정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려면 성능 검증을 위한 대형수조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대형수조 시험장 구축이 대양해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효성중공업, 차단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ESS 등 전력 솔루션 제품 생산 확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중전기 업체 중 최초 기록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6일 창원공장에서 ‘차단기 생산 1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단기는 송전선로, 변전소 등에서 고장 또는 이상 전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류를 차단해 전력 기기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

는 전력기기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977년 첫 차단기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97년 차단기 누적 생산액 1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 5조원, 올해 1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지난 50여년간 전력송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 초고압 송·변전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세계 40여개국에 차단기를 공급하며 글로벌 주요 차단기 브랜드로 자리 잡은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인도

푸네 차단기 공장 본격 가동으로 해외 공략에 속도를 더했다. 중동과 북미시장을 비롯 최근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시장에 대규모 GIS를 공급했고, 특히 올해 아이슬란드 국영 전력회사와 유럽 GIS 단일 공급 최대 실적인 220억원 규모 차단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차단기, 변압기 등 핵심 전력기기 외에 ESS(에너지저장 시스템),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등 미래 전력 솔루션 제품 생산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탑티어 전력기기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